

신천·금호강변 고도제한 풀릴 듯

대구시 도시관리계획 대폭 변경...다음달 발표

대폭 변경된 '대구시도시관리계획'이 다음달 발표된다.

다음달 시민들을 상대로 발표될 공람·공고 내용은 △최고고도지구변경 △녹지지역→주거지역 변경 △기반시설(도시계획시설) 확충 정비 등이다.

이번 사안은 도시관리계획 정비 차원으로, 도시환경 변화에 따라 대구시가 필요에 따라 정비하는 작업이다.

특히 최고고도지구변경의 경우 현재 고도제한에 걸려 있는

제2종 7층 이하와 3종 20층 이하가 전체 일반주거지역 면적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 이어서 이해 당사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이에 따라 층수제한에 묶여 개발이 지연됐던 신천변과 금호강, 공원 인근 부지 등은 이번엔 상당부분 해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동안 이곳 일대는 아파트를 짓지 못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다면 대구시를 상

대로 수많은 민원이 제기된 바 있고, 작년 중순 시의 용역이 끝난 이후 상당수 아파트 업체들이 땅 매입 작업에 나서고 있다.

한편, 지역의 최대 민원을 안고 있는 앞산 북편과 만촌동, 중동지역 등은 이번 도시관리계획변경에서 제외되게 됐다.

용도지역 변경은 지난 2003년 11월 대구시의 종세분화를 거쳤기 때문에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5년이 경과한 2008년 11월 이후에야 재조정이 가능하다는 것.

대구시 도시계획 관계자는 "용도지역 변경에 앞서 학교, 공원, 도로, 상하수도 등 도시 기반시설이 확보돼야 한다. 또 도시 특성상 단독(저밀도) 주거 지역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검토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윤용태기자
yty@kyongbuk.co.kr